



제헌절 기념식 한자리에 모인 4당 대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 외연 확대나 호남 집중이나...국민의당 '고민'

### “호남 없이 존립 위태”... “중도 공략해야 미래 기약”

### 대선 앞 딜레마... 내년 정계개편 변수되나 '주목'

총선 홍보비 파문의 위기에서 한 발 벗어난 국민의당이 비대위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제3당으로서의 위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중점 공략 지점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 홍보비 파문 이후, 지지율이 빠지면서 호남의 지지를 우선 견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어렵더라도 수도권 등 전국 지지를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직후,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수도권과 중도층 공략을 우선해 대선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이끌어 냈듯이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중도, 합리적 보수를 만나며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적 지지율을 높여 대선 승리를 이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을 향해 표를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장 어렵다고 호남의 지지 결연에만 급급한다면 '호남당'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 홍보비 파동 이후, 호남에 서까지 지지율이 빠지면서 호남 기반을 다져 놓고 수도권 및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민심에 민감한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국민의당 내부 논의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근 호남의 인사·예산·정책분야에서 소의를 연일 지적하며 '호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호남 지지세를 우선 견고히 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비대위원장은 12명의 비대위원에 자신을 포함해 호남 출신을 4명만 배치, 국민의당이 '호남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호남의 지지를 견고히 하면서도 국민의당을 호남당의 이미지에 갇히는 것을 막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권 정당으로 이끌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내부적 충돌보다는 당분간 새정치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과 예산 국회에서의 활약, 성공적인 전대 준비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호남과 함께 전국적 지지를 함께 이끌어 내는 당의 결집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호남은 순망치한 관계며 어느 한 쪽이 무너지면 모두가 어렵게 되는 구조”라며 “결국 어렵더라도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와 전국 지지를 확보를 동시에 이뤄야 하는 힘든 생존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동욱기자 tuim@

# 정세균 의장 “국가개조 논의 시작해야”

### 제헌절 경축사... “2년내 새 헌법 공포 바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 놓기에 앞장서겠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분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민초들 아픔 더는 방치 않겠다”

### 강진서 지지자 회합... “할 일 너무 많아” 정계복귀 시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 복귀가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강진에 참가 중인 손 전 고문은 지난 16일 강진에서 지지자들과 회합을 하고 정계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집거 중인 울막에서 ‘손학규를 사랑하는 모임(손사모)’ 회원 50여명을 맞이하고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다. 저서 ‘저녁이 있는 삶’에 직접 지필 서명도 했다. 손 전 고문은 식당에서 이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 모임의 전국 시·도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사모’는 최근 손 전 고문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스스로 손수건과 티셔츠를 맞춰 입는 등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기원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식사 자리에서 회원들은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으며

손 전 고문은 “의중은 알겠다.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손 전 고문은 특히 이 자리에서 “민초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정치가 국민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출산 포기 등 국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등 현실정치 복귀를 시사하는 여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측근은 “주변의 거센 재촉에 고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며 “만일 정계 복귀를 선언한다면 식당에서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겠느냐”며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손 전 고문의 영입을 공식화하며 구애를 보내고 있으며 더민주도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 시도당위원장 불꽃 경쟁 예고

###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서 호선...광주·박혜자·이형석·이병훈 전남 이계호·김영록 경쟁...여성위원장, 유은혜·양향자 2파전

더불어민주당이 각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더민주가 오는 8·27 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권역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만큼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최고위원 전초전으로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더민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현재 텃밭인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로는 박혜자 전 국회의원과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병훈 전 아시안문화중

심도시 추진단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서구갑, 북구를, 동남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 시도당위원장 도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도당위원장을 함의 추대할 것인지, 경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주시당은 내달 13일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광주시당 개편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자 비대위원인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김영록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상

태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생존한 유일한 더민주 현역의원인 만큼 도당위원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경선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더민주의 새 지도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당 대표와 함께 10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권역별 최고위원 5명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호남, 충청·강원 5개 권역에서 1명씩을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당위원장 경선이 최고위원 전초전으로 불리며, 뜨거운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나머지 5명은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5개 부문별 최고위원으로, 각 부문의 전국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된다.

우선 청년위원장은 이동학 전 혁신위원의 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초선의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이 고심 중에 있다. 여성위원장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인 민평련 소속으로 당 대변인을 지낸 유은혜(경기 고양병·재선)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가 발탁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의 2파전이 예상된다. 노동위원장은 현 전국노동위원장인 이용득(비례대표)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영애(서울 강서 병) 의원, 그리고 이석행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 반성 없는 새누리 ‘총선 백서’

### 참패 원인·인적 책임론 외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다” 17일 공개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백서’를 본 당인파의 일 반적인 총평이다.

20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이 백서는 전문가, 일반인, 출입기자, 당 사무 처 직원, 총선 경선후보 등의 의견을 나열식으로 담았다.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으로는 ▲계파 갈등에 따른 공천 파동 ▲상향식 여론 조사 공천 ▲수직적 당정 관계 ▲대국 민 소통 부재와 오만 ▲정책 부재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총선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대부분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어서 굳이 백서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진박(진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중 어느 쪽에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고 구체적인 인적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독단을 문제 삼는 대목이 포함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진실한 반성과 철저한 책임 가리기가 백서에 담겼어야 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내용만 나열해 놓았다”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 최고

금리는

##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